

화성과 화성 사이

글: 강홍구

1

윤병주가 찍거나 만든 화성 풍경은 경기도 화성이면서 동시에 지구와 비슷하다고 알려진 행성인 화성(mars)이기도 하다. 말놀이처럼 시작된 화성 작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이라는 행성의 이미지와 비슷한 사진들로 인해 이중적이 된다. 그 이중성은 일차적으로 경기도 화성이라는 곳이 지구의 일부, 그것도 대한민국 경기도에 있으면서도 다른 별처럼 보인다는 낯설음을 뜻한다.

이는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일례로 <스타워즈>를 비롯한 SF영화에 등장하는 무수한 행성들은 지구이면서 동시에 지구가 아니다. <반지의 제왕>이나 그 밖의 다른 판타지 영화들도 마찬가지다. 영화가 보여주는 풍경은 우주의 어느 곳이라고 가정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지역이지만 시각화되는 방식은 지구인의 그것이다.

윤병주의 화성 작업이 흥미 있는 것은 대중문화에서는 익숙한 이런 가상들을 시치미 떼고 사진 속으로 끌어들이려 형상화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파헤쳐진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화성 땅의 풍경을 낯설게 하기라는 방식으로 시각화 한다. 그 선택은 시각적으로 흥미를 끈다. 화성은 분명히 지구, 대한민국의 한 지역이면서 낯선 별의 외관과 유사해진다. 이러한 시도는 작가 자신이 몸담은 공간을 타자화하는 것이다. 이 타자화는 익숙한 것을 달리 보게 하는 장치로는 성공적이다. 지역을 탐색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나사의 기록 방식을 흉내 내고 차용한 사진, 비디오, 항공사진 등도 적절한 효과를 발휘한다.

무선 조종 장난감 자동차로 만들어진 화성 탐사 로봇 영상, 소형 촬영 비행기로 찍은 건설현장 사진, 연속 사진으로 이루어진 화성 풍경들은 익숙하면서도 확실히 낯설다. 물론 이 낯설음도 친숙한 시각 코드의 하나가 된지 오래이지만 그럼에도 효과는 만만치 않다. 평소에는 천체로 생각하지 않는 지구가 우주에 있는 행성의 하나라는 사실과 그 안에 있는 경기도 화성이라는 지역 또한 얼마든지 달리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2

경기도 화성에 대한 내 기억은 단편적이고 제한적이다. 실제로 화성 땅을 밟은 적도 없으며-있더라도 지나가는 길이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그 유명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나, 소설가 이문구가 만년에 살았던 농가 주택이 있던 곳이라는 게 전부다. 즉 내가 가진 경기도 화성에 대한 기억은 사실 태양계의 한 행성인 화성에 대한 지식과 기억 보다는 적다.

윤병주의 작업은 이러한 아이러니, 이상한 불일치를 겨냥한다. 경기도 화성을 바라보는 개발업자, 혹은 건축 사업가들의 시선과 행성으로서의 화성을 바라보는 지구인의 시선 사이에 궁극적인 차이가 있을까? 화성이라는 별은 지구인의 시각에서는 물론, 전쟁의 신 마르스(mars)이며 그 이후에는 인간의 이주가 가능할 수 있는 지구와 유사한 별, 혹은 지구를 침략하는 외계인들의 거주지거나 기지였다. 때문에 화성으로 가는 우주 탐사 여행은 물, 문명이나 생명의 흔적 따위에 초점이 맞춰졌고 다른 행성과는 달리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탐사 과정은 늘 미래 인류의 정착과 생존 가능성에 대한 조사이기도 했다.

경기도 화성은 사실 꼭 화성이 아닌 재개발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어느 곳이라도 상관없다. 화성에 대한 탐사가 외계의 어느 행성이라도 결국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듯이. 하지만 기이하게도 경기도 화성과 행성 화성 사이엔 그 소비 방식의 유사성이

있다. 특히 경기도 화성의 경우 미해결 연쇄 살인 사건 때문에 외지인에게는 늘 괴물이 잠복해 있을 수도 있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마치 행성 화성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외계 생명체가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문화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듯이.

이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윤병주의 작업은 그 겨냥하는 지점이 경기도 화성과 행성 화성 사이의 시각적 놀이를 넘어서고 있을까? 앞서도 말했듯이 지구라는 행성의 한 지점을 우주인 혹은 외계인의 시각에서 본다는 관점은 참신하다. 하지만 그 시선은 아무래도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건 어쩌면 나사에서 보여준 화성 탐사 결과물을 손쉽게 차용해 결국은 예측 가능한 지구인의 시각에서 본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3

지금 까지 윤병주가 사진 작업에서 보여준 대상은 주로 이국적인 것, 낯선 것이었다. 다음 미래작가상을 받은 <우사단>도 그런 경우이다.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인데 그 안에서 만나는 이슬람 사원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른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그의 작업의 주제였다. 사실 사진이란 카메라를 든 작가가 끝없이 자신의 시선과 관점에 관한 반성의 결과여야 한다. 어떻게 볼 것인가는 결국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화성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다른 별처럼 바라본다는 아이디어는 훌륭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형상화 하는 능력 역시 그럴 듯 하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한다. 아이디어 다음에 화성, 지구의 한 모퉁이를 누구의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는 다소 관습적인 길을 택하고 말았다. 아니 관습적인 것 또한 나쁘지 않다. 진짜 문제는 나사나, 지구인이 외계의 별들을 어떻게 보고 관찰하는 가에 관해 다시 생각해보지 않은데서 온 것이나 아닐까?

즉 나사의 관점, 인류에게 일반적인 시선이 된 시각을 뒤집었으면 보다 복잡하고 의미 있는 텍스트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그 시선이 무엇이 될지는 나는 알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예를 들면 지구인이 화성을 바라보듯이 외계 우주인의 시각에서 경기도 화성을 보았다면 어땠을까가 궁금해진다. 즉 시선이 좀 더 다층적이었으면 훨씬 읽을거리가 풍부한 작업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보통 글이라면 이런 구절은 넣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윤병주는 내 수업을 들은 적도 있고, 굳이 내게 글을 바란 이유가 뭔가 쓴 소리를 위해서라고 해석해서 그냥 넣는다.)

4

윤병주의 지금까지 낯설음, 이국적 신기함을 우리 현실에서 찾아내 형상화 해왔다. 그리고 그 자체로 충분히 흥미가 있었다. 즉 그는 소재를 고르고 찾아내 이미지화하는 능력이 상당하다. 그러나 그의 사진과 작업이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것은 어쩌면 인문학적 통찰력인지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은 흔히 말하는 문, 사, 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 생각, 사유 방식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능력이다. 사진은 렌즈이면서 동시에 거울이다. 렌즈로는 다른 사물과 대상을 보고, 거울로는 자신을 보아야 한다. 특히 자신의 시선, 즉 해석의 배후에 있는 사고 방식을 반성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윤병주의 작업 화성은 그가 가진 감각적 시선과 형식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가 작가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김 수영 식으로 말하면 온 몸으로 밀고 가는 사진, 온몸으로 밀고 가는 통찰력일지도 모르겠다.